

## ▶ 달러/원 주간 전망

### • 상승 재료에 보다 예민한 환율..수요 우위 월말 수급 경계

서울, 4월2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무역긴장 완화 여부와 월말 수급 등에 영향받으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15-1450원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여부가 여전히 가장 큰 시장 변수다. 미-중 갈등 전개 상황과 미국 자산 매도 재개 여부 따라 증시와 금리, 그리고 달러 변동성은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 월간 달러/원 환율이 석달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달러 약세폭에는 못 미치는 등 상대적 완화 약세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달 환율이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1500원을 가시권에 돌 때 네고는 꽤 많이 소화됐다고 시장참가자들이 평가하는 터라 그 때보다 환율 수준도 낮아진 현 시점에서 월말 수급이 완전한 공급 우위로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외인 배당 역송금 등 수요 우위 수급에 약달러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했던 달러/원은 위험선호가 견인하는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비교적 편하게 달러 방향을 따르는 분위기다. 월말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탈 경우 서학개미들의 활발한 투자에 관련 수급 경계는 커질 수 있다.

최근 월말엔 유독 외인 주식 관련 수급이 환율 변동성을 키웠다. 이달 외인들은 코스피시장에서 약 10조원을 순매도했는데 월말 리밸런싱으로 인한 수급이 처리될 경우 환율은 또 심한 변동성에 출렁일 수 있다.

무역 긴장 완화 국면에서 위안과 달러의 동반 강세 현상이 전개될 경우 그간 약위안에 발목이 잡혔던 원화가 쉽게 달러로 초점을 바꾸지는 않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주말 조금 회복이 되긴 했지만, 최근 시장 경계감을 고조시키는 FX스왑포인트의 월말 변동성 확대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주는 일본은행(BOJ) 정책회의가 예정돼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BOJ의 통화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3월 소매판매와 개인소비지출(PCE) 및 1분기 GDP, 4월 ISM 제조업 PMI 그리고 비농업부문 고용 등 핵심 경제지표 결과가 줄줄이 예정돼있다. 중국 역시 4월 공식 제조업·서비스업PMI 등 미국 관세 부과 여파를 가능하는 주요 경제지표가 나온다.

또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국내외 증시 변동성을 자극할 핵심 변수다.

한편, 한국은 4월 수출입 잠정치가 발표된다. 이를 통해 관세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 [yena.park@thomsonreuters.com](mailto: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이슈

### • 트럼프 취임 100일, 美 실적과 고용보고서, 무역 협상 추이 등

#### 1. 트럼프 취임 100일

4월30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자신이 만든 것이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는 금융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지만, 아직 경제 타격을 반영할 만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인해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감했다. 그리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캐나다에서 반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오래된 동맹 관계는 허물어지고 시장 심리는 취약하며 불확실성이 만연해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다음 100일 동안은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Trump's first 100 days in office

Investors have sold US assets and flocked to safe-havens and other markets

— S&P 500 — Dollar Index — Rest of World Stocks\* — Gold — Euro/Dollar



\* Based on MSCI All-World Ex-US stock index. All values rebased to 0 as of January 17 2025

Source: LSEG/Reuters - Amanda Cooper, April 24 2025

### 2. 실적, 그리고 고용보고서

이번 주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플랫폼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며, 주요 경제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 이들 주식과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세븐" 메가캡 기업들인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는 2025년 시작이 좋지 않아 주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S&P500 기업의 5분의 1 이상이 실적을 발표했으며 1분기 전체 수익은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확실한 무역 배경을 고려할 때 기업 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월2일에 발표되는 4월 고용지표와 하루 전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경제 상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비농업 취업자 수는 3월의 22만8,000명 증가 이후 13만 5,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The Magnificent Seven

The market value of Wall Street's heavyweights year to date

Alphabet Amazon Apple Meta Microsoft Nvidia Tesla



By Reuters • LSEG

### 3. 무역 긴장 완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125% 관세의 일부 면제를 고려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 소셜 미디어와 기업 및 무역 단체들 사이에서 면제 대상인 131개 품목의 제품 목록이 널리 퍼졌다.

이는 수요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이 관세를 철회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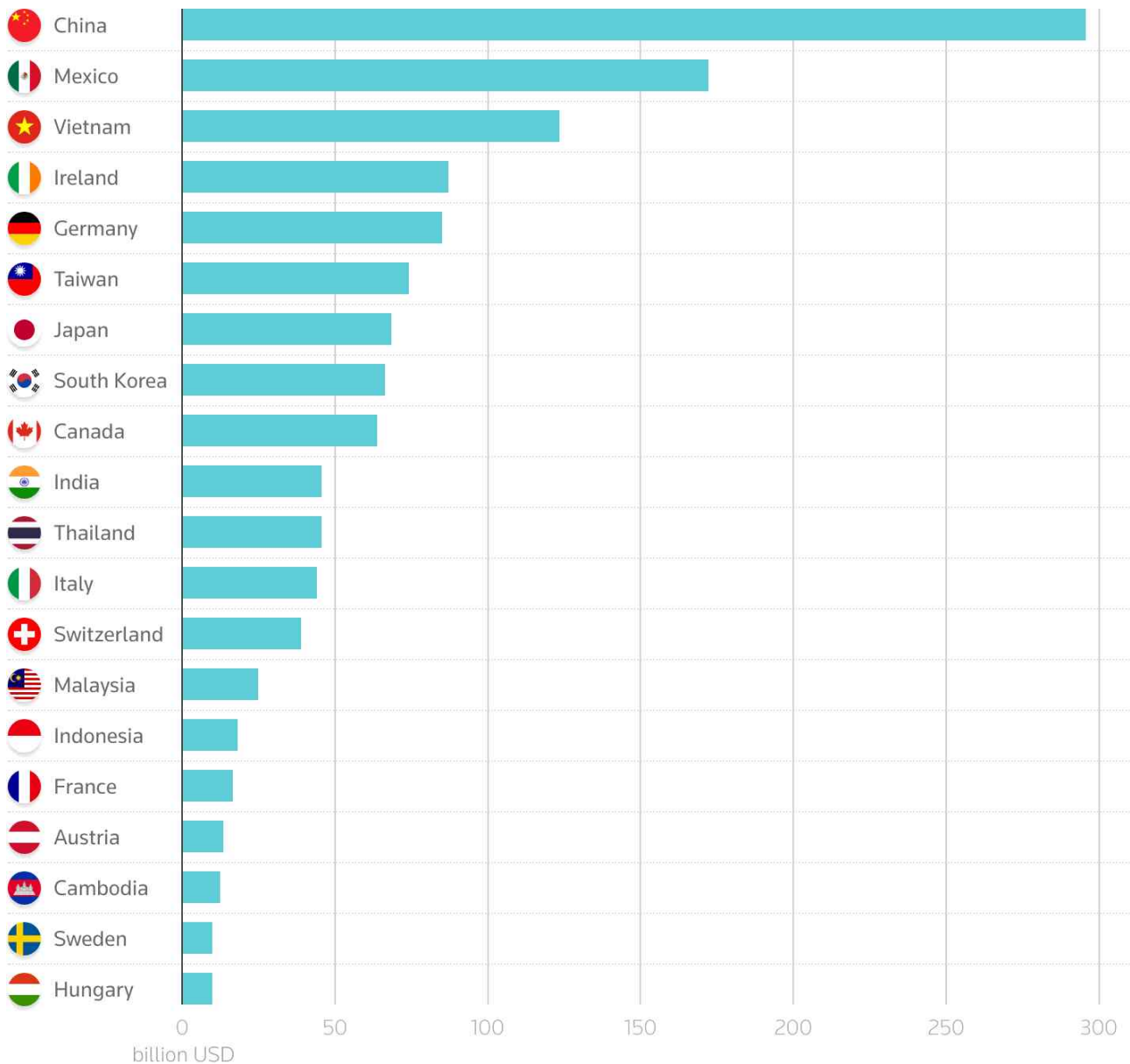
또한 베센트가 엔화 강세를 위해 일본을 공격적으로 압박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은 5월1일 회의를 갖는 BOJ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베센트는 워싱턴에서 회담을 위해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환율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는 숫자가 없다고 밝혔다.

불과 일주일 전 트럼프는 일본이 수출업체를 돕기 위해 엔화를 약화시켰다고 비난했다.

## Economies with highest US trade deficits in 2024

According to the U.S. Census Bureau



Source: United States Census Bureau

Pasit Kongkunakornkul • April 2, 2025 | REUTERS

### 4. 캐나다

캐나다인들은 월요일 투표장으로 향하고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에 맞설 강력한 권한을 원한다. 카니 총리는 관세와 합병 논의로 인해 미국이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의 자유당은 1월에 24%포인트 차이로 뒤졌던 야당 보수당에 5%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반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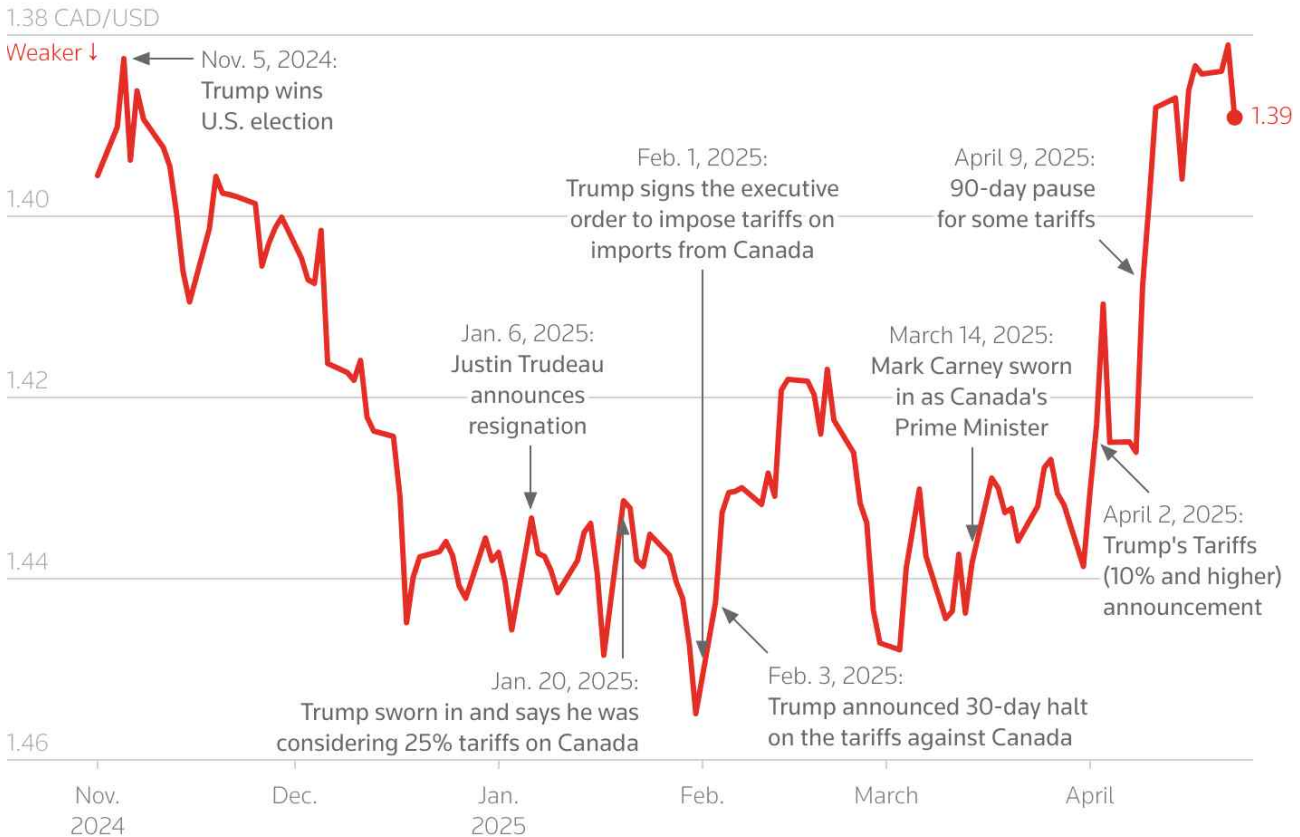
시장은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2월의 22년래 최저치에서 상승한 캐나다 달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다. IMF는 캐나다의 성장을 전망치를 낮췄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려는 자유당의 계획은 예상보다 높은 예산 적자를 시사한다.

영란은행 총재 재임 시절 '믿을 수 없는 남자친구'로 명성을 얻은 카니 총재의 어깨가 무겁다.

## Canadian dollar amid Trump's tariffs and election vibes

The upcoming Canadian federal election, which will be held on April 28, combined with the uncertainty of Trump's tariffs, has impacted the Canadian dollar.



Note: Data as of April 23, 2025 05:30 p.m. GMT

Source: LSEG Workspace

Pasit Kongkunakornkul • April 24, 2025 | REUTERS

### 5. 유로와 유로존 채권의 향방

유로와 유로존 채권은 이제 미국의 관세 혼란을 피하는 투자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응은 이러한 자산이 유로존 경제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5월2일에 발표되는 유로존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물가 상승률이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로 계속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를 강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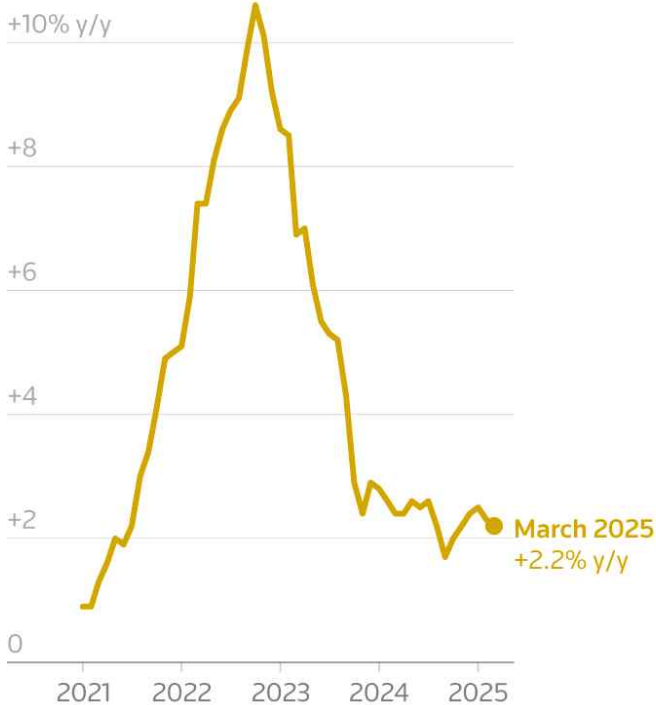
같은 날 발표되는 유럽 제조업체에 대한 HCOB의 최종 구매관리자지수도 지역 공급망에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광범위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진한 지표가 유로를 흔들 것으로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독일의 재정 지출이 유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바클레이즈는 백악관의 정책 충격이 완화되지 않는 한 유로가 1.15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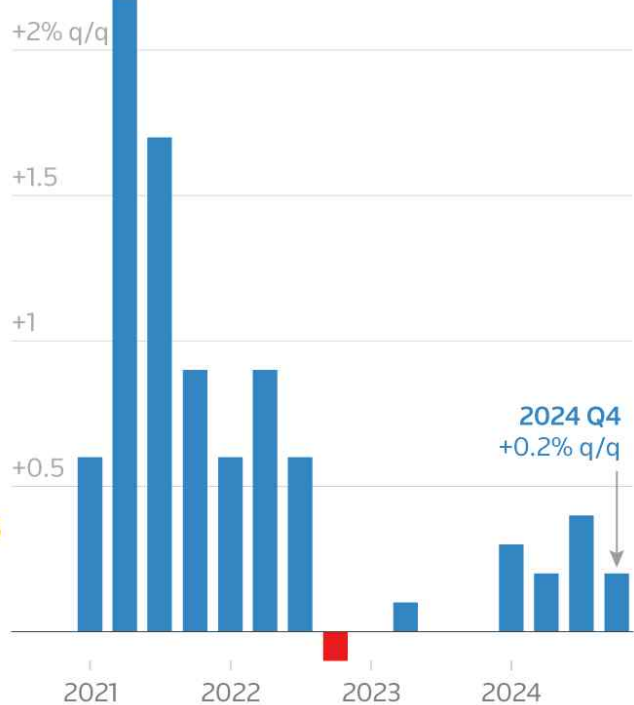
## Eyes on data from Europe

The European Central Bank just cut its main deposit rate to bolster a barely expanding euro zone economy, while inflation eased last month.

### Headline inflation



### Gross domestic product (GDP)



Sources: ECB, Eurostat

Pasit Kongkunakornkul • April 23, 2025 | REUTERS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mailto: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빅 테크 기업실적, 고용 데이터 비롯 핵심 경제지표 대기..증시 반등 시험대

뉴욕, 4월28일 (로이터) - 이번 주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끄는 기업 실적에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 전개 상황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미국 증시가 반등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주는 월간 미국 고용 보고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지표 등 시장에 민감한 이벤트가 예정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최근 증시 강세가 관세로 인한 증시의 최악 상황이 끝났음을 시사하는지 여부를 가늠 중이다.

S&P500 지수( [.SPX](#) )가 한 주 동안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벤치마크 지수는 최근 하락폭을 절반가량 줄였지만 2월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는 10% 정도 하락한 상태다.

지난 주 중국과의 긴장 완화 가능성 등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스탠스 완화 신호로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관세에 대한 새로운 전개가 시장 상승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보스턴 파트너스의 글로벌 시장 리서치 디렉터인 마이클 멀래니는 "관세 상황에 대한 타협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랠리를 뒷받침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은 여전히 "그날의 뉴스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면서 "관세에 대해 긍정적이면 시장은 상승하고, 부정적이면 시장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까지 다른 나라에 대한 가장 많은 수입 관세를 일시 중단한 후 투자자들은 무역과 관련한 더 많은 우여곡절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철회는 4월 2일 전면적인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심각한 주가와 채권시장 변동성이 나타난 이후 나왔다.

## S&P 500 in 2025

The benchmark U.S. stock market index has rebounded from recent lows but is still negative for the year



By Lewis Krauskopf • Source: LSEG

관세 불확실성은 다가오는 기업실적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UBS에 따르면 S&P500 지수의 시가총액 40% 이상을 차지하는 약 180개 기업이 금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중에는 지난 2년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 주가가 하락한 '매그니피센트 7' 중 4개사인 애플 [AAPL.O](#), 마이크로소프트 [MSFT.O](#), 아마존 [AMZN.O](#), 메타플랫폼 [META.O](#) 등이 포함돼 있다.

S&P500 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1분기 수익은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LSEG IBES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1분기 수익은 1년 전보다 9.7% 증가해 4월 1일의 증가 예상치인 8%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커에비뉴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인 킹 립은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때 발생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앞으로의 도전을 지적해왔다. 생활필수품 기업 프록터 앤 갬블([PG.N](#)), 탄산음료 및 스낵 기업 펩시코([PEP.O](#)), 의료 장비 제조업체 써모 피셔([TMO.N](#)) 등은 모두 연간 매출 전망치를 낮췄다.

투자자들은 또한 새로운 관세가 물가를 상승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광범위한 우려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무역 체제가 경제 데이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주시할 것이다.

이번 주는 미국 1분기 GDP와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3월 PCE물가지표가 발표된다.

5월 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는 시장에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로이터 사전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노동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며, 4월 고용은 13만 5,000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전망에 대한 의구심은 소비 심리 및 기타 설문 조사의 부진한 수치에서 더욱 커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소프트 데이터'가 보고서를 통해 경제 약세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할지 보고 싶어 한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 \*\* 4월28일(월)

-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G 춘계회의」 (19-29일, 워싱턴 D.C)

#### \*\* 4월29일(화)

- KDI: KDI 현안분석 '최근 환율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12:00)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무위험 금리평형 편차의 변동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12:00)

#### \*\* 4월30일(수)

- 통계청: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 (08:00)
- 한국은행: 총재·금통위원 금통위 본회의 (비통방, 09:00)
- 기획재정부: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 (11:00)
- 한국은행: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 (14:30)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14:30)

#### \*\* 5월1일(목)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4월 수출입동향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08:00)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ADB 연차총회」, 「BIS 총재회의」 등 참석 (12:00)
- 기획재정부: 1차관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14:30)

#### \*\* 5월2일(금)

- 통계청: 2025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기획재정부: 1차관 제45회 물가차관회의 (10:00)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4월29일	18:00	유로존	총유동성(M3) 연간 증가율	3월	4.0%	4.0%
4월29일	18:00	유로존	가계 대출	3월		1.5%
4월29일	19: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4월		-0.73
4월29일	19: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4월	94.5	95.2
4월29일	19: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4월	-16.7	-16.7
4월29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2월		0.2%
4월29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2월	0.3%	0.5%
4월29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4월	87.0	92.9
4월29일	23:00	미국	JOLTS 구인건수	3월	7,500M	7,568M
4월30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3월	-0.4%	2.3%
4월30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3월	3.5%	1.4%
4월30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4월	49.9	50.5
4월30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4월		50.8
4월30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4월	50.2	51.2



4월30일	18:00	유로존	GDP 속보치 YY	1분기	1.0%	1.2%
4월30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4월25일 주간		233.5
4월30일	21:15	미국	ADP 전미고용	4월	108k	155k
4월30일	21:30	미국	GDP 속보치	1분기	0.4%	2.4%
4월30일	21:30	미국	고용비용	1분기	0.9%	0.9%
4월30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4월	45.5	47.6
4월30일	23:00	미국	개인소득 MM	3월	0.4%	0.8%
4월30일	23:00	미국	소비 MM	3월	0.6%	0.4%
4월30일	23:00	미국	PCE 물가지수 YY	3월	2.2%	2.5%
4월30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3월	1.0%	0.0
5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4월		48.5
5월1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4월		34.1
5월1일	20:30	미국	첼린저 해고건수	4월		275.240k
5월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월21일 주간	225k	222k
5월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4월		50.7
5월1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4월	48.0	49.0
5월1-8일	23:00	미국	자동차판매	4월		3.110M
5월1-9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4월		1,272.5B
5월2일	08:30	일본	실업률	3월	2.4%	2.4%
5월2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4월	48.7	48.7
5월2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4월	2.1%	2.2%
5월2일	18:00	유로존	CPI NSA	4월		128.04
5월2일	18:00	유로존	실업률	3월	6.1%	6.1%
5월2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4월	135k	228k
5월2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3월		9.2%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mailto: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 4월28일 (월)

- 유럽중앙은행 2024 연례보고서 발표 (오후 10시)

### 4월29일 (화)

- 유럽중앙은행, BIS · 영란은행 · IMF와 연례 통화정책 관련 컨퍼런스 공동 개최 (30일까지)
- 휴장국가: 일본

### 4월30일 (수)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5월1일까지)

### 5월1일 (목)

- 일본은행 통화정책 결정 발표
- 휴장국가: 중국(5일까지), 싱가포르, 홍콩 등

### 5월2일 (금)

- 휴장국가: 중국(5일까지) 등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mailto: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단독)-中 전기차 업체 비야디, 전략적 실수 이후 유럽 사업 재정비 - 소식통들

밀라노/상하이, 4월23일 (로이터) -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야디(BYD)는 충분한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고 현지 시장 지식을 갖춘 임원을 고용하지 못했으며 완전 전기 자동차에 저항하는 시장에서 하이브리드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는 등 전략적 실수를 저지른 후 유럽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6명의 전현직 비야디 임원이 밝혔다.

비야디 [002594.SZ](#) 는 이 중요한 수출 시장에서 이러한 초기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으며, 달러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하고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 특히 스텔란티스 [STLAM.MI](#) 의 임원들을 빼내오기 위해 막대한 보수 패키지를 제공했다고 임원들은 밝혔다.

비야디는 12월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유럽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비야디의 유럽 재도약을 위해 고용된 핵심 임원 중 한 명인 알프레도 알타빌라 비야디 유럽 특별 고문이 많은 유럽 국가에서 순수 전기차 전략이 여전히 어렵다고 비야디 창립자 겸 회장 왕찬푸에게 조언한 후 내려진 것이다.

알타빌라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매우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비야디의 엔지니어들에게 모든 신모델은 유럽용 EV와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친환경 전환에 대한 고객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일부 개별 유럽 경영진의 채용이 보고되었고, 비야디는 독일 시장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비야디 내부 임원들이 파악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민감한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비야디는 논평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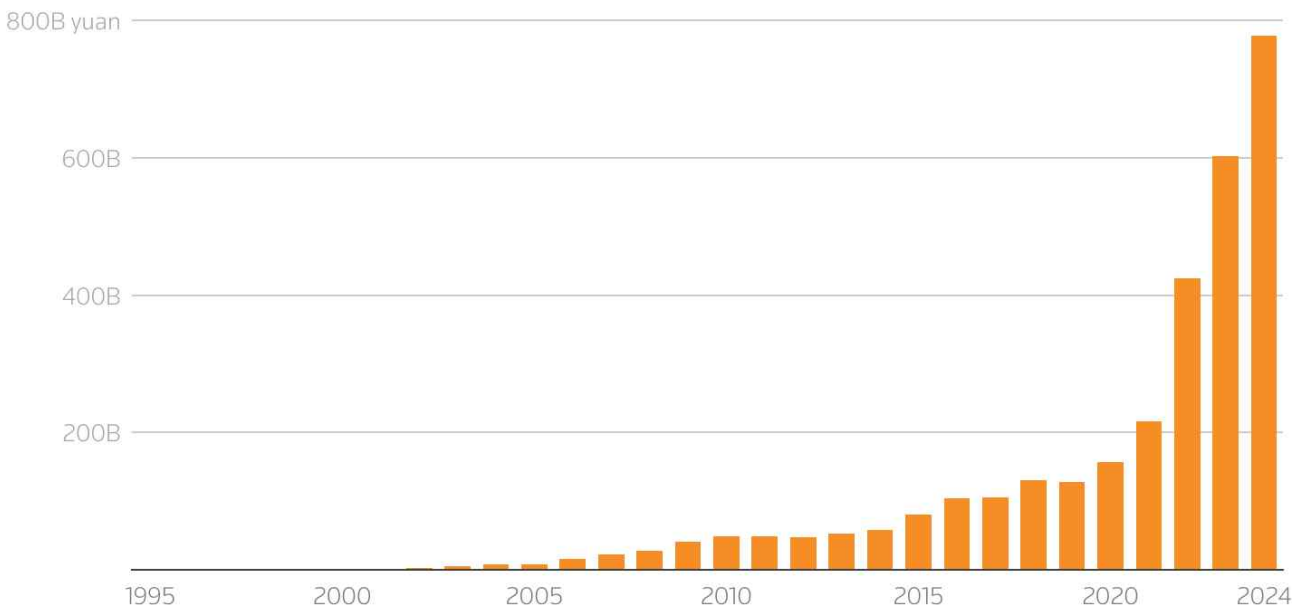
12월에 알타빌라는 이탈리아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유럽에서 비야디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전기차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호도에 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야디는 지난 6월 피아트-크라이슬러 임원 출신인 알타빌라에게 처음 접근했고 8월에 그의 임명을 발표했다. 그는 사모펀드 회사인 CVC 캐피탈 파트너스( [CVC.AS](#))의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알타빌라는 스텔란티스에서 독일과 몇몇 다른 중부 유럽 국가를 담당할 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그로소, 스페인의 알베르토 데 아자 등 떠오르는 스타 매니저들을 차례로 영입했다. 비야디는 이들에게 상당한 임금 인상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현직 비야디 임원은 밝혔다.

## BYD's rise as an industry giant

The EV maker's yearly revenues reached 770 billion Chinese yuan last year



By Nick Carey and Alessandro Parodi • Source: BYD

유럽 사업을 신속하게 강화하려는 비야디의 또 다른 결단의 신호로, 회사는 작년에 임원들 중 2번째로 높은 스텔라 리를 이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는 올해 말 헝가리에 첫 유럽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기 전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의 최소 5%를 점유

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전 유럽 책임자 마이클 슈를 대신했다. 하지만 2024년 비야디는 2.8%의 점유율과 총 5만7,000대의 판매량으로 회사의 기대치를 밑돌았다.

비야디가 유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부분적으로는 2020년 이후 7배 증가한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2024년 420만 대로 급증한 실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야디는 작년에 테슬라( [TSLA.O](https://www.tsla.com) )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판매업체가 되었으며, 현재 6번째로 큰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다.

비야디 파트너와 업계 전문가들은 비야디가 유럽에서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최대 리스 회사 중 하나이자 이 지역의 비야디 파트너인 아이벤스 [AYV.PA](https://www.ayv.pa) 의 CEO인 팀 알버트센은 "그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럽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유럽이나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처럼 중국인이 중국에서 잘하는 것이 유럽에서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야디의 유럽 재도약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비야디의 유럽 판매량은 2024년 1분기의 약 8,500대에 비해 2025년 1분기에 3배 이상 증가한 3만7,000여 대를 기록했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mailto: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분석)-미-일 무역 분쟁 시 엔화가 좋은 카드가 아닌 이유

도쿄, 4월18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달러 대비 엔화 강세에 대한 열망은 워싱턴에서 진행중인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반영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환율을 움직이려는 모든 노력은 양측 모두에게 리스크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수석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상은 수요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협상을 시작했으며 트럼프도 깜짝 등장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트럼프가 일본이 엔화 절하 정책을 추진하여 불공정한 무역 어드밴티지를 갖는다고 비난한 후 환율을 확실히 어젠다에 포함시켰다.

아카자와는 엔화가 수요일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통화 문제는 다음 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회의를 위해 워싱턴에 와 베센트 장관과 직접 회담을 가질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이 논의하는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달러/엔 환율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본질적으로 까다롭다고 경고한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시도는 엔화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일본의 막 시작된 경제 회복세를 꺾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짓밟을 위험이 있다.

일본 관리들은 또 엔 대비 달러를 매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장이 특히 취약한 시기에 미국 부채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씨티그룹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러라고 협정'이라는 달러 평가절하를 추진할 경우 일본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카시마 오사무 씨티그룹 통화 전략가는 연구 노트에서 "현재로서는 '마러라고 협정'을 구체적인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일본과 같이 외환보유액이 많고 통화가 저평가된 국가가 이 경우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자동차 수출은 대미 수출의 약 28%를 차지한다. 일본은 트럼프의 자동차 25% 관세 부과로 동요하고 있다. 3월26일 발표 이후 벤치마크 지수 닷케이지수( [.N225](https://www.dn225.com) )는 6% 하락했다.

아카자와는 초기 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일본과의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 ◆ 마러라고 협정?

엔화는 이미 달러 대비 저점에서 벗어났다.

작년 중반에는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과 달러 평가 절하에 합의했던 플라자 협정 이후 처음으로 달러 가치가 162엔( [JPY=USD](https://www.jpy=usd) ) 가까이로 올랐다.

그러나 이번 주 달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급락하며 142엔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추가 엔화 강세에 대한 투기적 베팅은 1986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까지 증가했다.

트럼프와 베센트는 달러 약세를 도우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 전에 현재의 환경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와 달리, 국제 투자자들은 거의 1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국채는 무위험 투자 수익의 벤치마크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이번 달 트럼프가 초래한 국채시장 혼란으로 이러한 가정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번 주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심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노무라의 일본 거시 리서치 책임자인 이케다 유노스케는 "재무장관이 미국 국채의 수석 세일즈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베센트가 장기적으로 약세 통화의 장점을 믿는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달러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화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도 더 강한 통화를 원하는데, 일본 당국은 산업 경쟁력 향상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엔화 가치를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빠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

또 BOJ에 금리 인상을 서두르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차입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모두 유권자들에게 골칫거리이며, 7월에는 중요한 참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즈호 증권 수석 데스크 전략가 오모리 쇼키는 "일본 측은 BOJ가 독립적이며 통화를 조작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는 긴축 사이클에 있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mailto: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